

한국전쟁 말기 휴전협정에 대한 한·미 신문의 사실 비교 연구¹⁾

변병헌·박홍수·김영기

(전남대 신방과·연세대 신방과·전남대 신방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끝났다. 그러나 휴전자체가 결코 전쟁상태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한과 북한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으나 양국간의 갈등과 대립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아직도 끝나고 있지 않은 분단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을 당시의 역사적 판단을 재검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한국전쟁 중 유엔측과 한국 정부와의 협력의 근본토대를 제공한 유일한 기록문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 사이에서 주고받은 서신이었다. 공산군의 남침으로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웠던 1950년 7월 15일에 이대통령은 주한미대사관 무초(John J. Muccio)의 요구로²⁾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전체 한국군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이 공적 자료의 전부이다.³⁾ 한국의 통치권을 위임받고, 당시

1) 이 연구는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2) 대전으로 이 대통령을 뒤쫓아간 무초(Muccio) 대사는 이 대통령에게 그가 알기로는 내각과 국회가 잠정적으로 기능을 정지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으며, 전쟁을 이승만 내각 혹은 다른 한국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한미군사전문가들의 처방에 맡겨져야 한다며 미국에로의 전체 한국군에 대한 통치권의 이양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했다.

Goulden, Joseph C.(1982), *The Untold Story of the War*, New York: Times Books, pp.88-89.

3) 외무부(1962), 『대한민국의교연표』, 서울, p.179; Kim, se jin(ed.)(1976), *Documents on Korea n—American Relations 1943-1976*,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pp.128-129.

휴전협상을 조율했던 미국의 영향력과 한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양국간의 정치적 의미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은 역사고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당시의 입장을 언론사적으로 접근하여 당시 두 나라간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의 언론사 연구에서 한국전쟁 당시 언론의 보도 경향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쟁말기(1953년) 휴전협정에 대한 한·미간의 보도 형태를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현대 한민족 최대의 사건이요, 비극인 한국전쟁은 아직도 휴전상태에 놓여 있다. 반세기가 가깝게 지속되고 있는 이 휴전상태와 관련하여 당시 협정의 당사자였던 한국과 미국의 언론이 과연 어떤 태도로 이를 보도했는가를 정리하는 작업은 역사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많으리라고 본다. 즉, 같은 우방이면서도 휴전협정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던 한국과 미국의 정책을 해당국가의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언론과 정부 사이,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Herbert J. Gans는 한 국가의 언론은 그 나라의 지배적인 철학, 도덕적 의식, 정치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한다. Gans에 의하면 미국 언론은 특히 국가가 전쟁 중일 때 자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에 기반해서 보도한다고 한다.⁴⁾ 같은 맥락에서 Bernard C. Cohen도 국제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미국언론은 미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는 정부와 언론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것이 국가적 이익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전통적으로 언론은 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동의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것이다.⁵⁾

4) Gans, Herbert J.(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Random House, INC., Vantage Books, pp.42-43.

5) Cohen, Bernard C.(1983), *The Press and Foreign policy*(Green Press), p.146.

이 연구는 휴전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나 자료가 부족한 당시 상황에서 휴전협정에 대한 한·미 양국의 언론의 보도형태를 분석하여 당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조명하고 언론과 정부와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 상황 중에서 휴전이 제안되고 최종 협정이 이뤄지기까지 한국과 미국의 신문들은 이 사안을 어떤 태도로 다루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1953년 3월 5일(스탈린 사망으로 휴전협정이 급진전된 시기)부터 휴전협정이 정식 조인된 그해 7월 27일까지의 한국 신문(《동아일보》, 《조선일보》)과 미국신문(*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에 게재된 휴전협정 과정에 관련된 사실을 분석하기로 한다.

각각의 신문 사설이 취급한 논제들(topics/issues)을 휴전 제안, 휴전협상 과정, 포로송환, 휴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유엔 측 반응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설의 태도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비판적 태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 언론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2. 문헌연구

1) 휴전 경과

(1) 휴전협정이 이뤄지기까지 국내 상황

한국전쟁에서 휴전협상이 제의되고 휴전회담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아래처럼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하는데 1953년 4월부터 휴전이 조인된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을 제4시기라고 한다. 본 연구가 설정한 휴전에 관한 범위는 제4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역사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 한정시킨다. 이 시기에 진행된 휴전협상은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전세가 재역전되고 전선의 장기적 교착상태가 상호 인식된 가운데 본격화되었다.⁶⁾

- ① 협상의 개시와 군사분계선 설정합의(1951년 7월 10일-1951년 11월 27일)
- ② 휴전의 세부사항에 관한 일괄타결(1951년 11월 28일-1952년 5월 7일)
- ③ 장기휴회의 지속과 협상의 급진전(1952년 5월 8일-1953년 3월 30일)
- ④ 전쟁포로문제 합의와 휴전협정 체결(1953년 4월 1일-1953년 7월 27일)

어찌됐건 3년 1개월 2일 17시간 동안 한반도에서 격렬하게 전개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협정당사자 간의 한국휴전협정(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⁷⁾체결로 총성이 멎게 되었다.⁸⁾

휴전회담은 1951년 6월 하순부터 본격화되면서 약 2년 1개월 동안 전선과 협상테이블을 오가며 사실상 제2의 전쟁으로 전개되었다. 휴전회담의 주요쟁점을 둘러싸고 양측 당사자간에 고도의 협상전술과 노골적인 합수곡선에 따라 전쟁의 국면적 목표와 정책이 미묘하게 변화되어 나갔던 것이다. 또한 휴전협상 기간 중에 한국전쟁의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결과가 전쟁의 조속 휴전이라는 목적 아래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전쟁의 정치경제학의 역설을 가장 극명히 전형화시켜주었으며, 협상의 주체 및 당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전쟁이 갖는 성격의 국제적 대리전적인 한 측면을 법적으로 문서화시켜 놓고 있다.⁹⁾

본 연구에서는 휴전에 관한 국내외 언론의 보도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휴전협상이 제의되고 휴전회담이 본격화되는 제4시기로 한정하였다. 즉, 실제 휴전제의를 1951년 6월 중순부터 시작되었으나 매우 지지부진한 회담이 계속되었다. 본격적으로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휴전이 성립된 1953년 4월 1일부터 그 해 7월 27일까지의 기간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6)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1993), 『한국전쟁의 이해』, p.298.

7) 협정 원본에는 '정전협정'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8)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앞의 책. p.296.

9) 같은 책, p.297.

(2) 휴전에 대한 남한 정부와 미국의 태도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한 유엔 결의(1947. 11. 14.)에 따라 실시된 자유선거에 의해서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 주권이 비록 38도선 이북까지 미치지 못했으나, 당시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지역에 대한 보충선거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으로 인위적인 38도선이란 장벽이 자연 해소되었음을 선언한 한국정부는 이 기회에 북한군을 격멸하여 유엔 감시하에 북한지역에서 자유 비밀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정권을 수립하는 길만이 지상의 과제라 생각하고 있었다.

1951년 5월말 이후부터 유엔군측과 공산군측간에는 전전상태에서의 휴전협상을 위한 막후 접촉이 진행되어 실현될 전망이 농후해져 가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도 한국은 변함없이 북진에 의한 통일을 계속 주장하면서 범국민적인 강력한 휴전반대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또한 휴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잦았다.¹⁰⁾

1953년 4월 26일에 양측 대표단의 전원이 판문점 협상천막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지도체제가 변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대해 점점 더 공개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그것이 새로운 위협의 요소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지도자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조건으로는 휴전은 수락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그가 해야 한다면 공산군에게 “독자적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도를 알렸다. 그의 조치는 적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엔군측 대표단을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다.¹¹⁾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의 조건으로 강력하게 제시한 것은 1) 한국에서 모든 중공군 철수 2) 북한공산군의 무장해제 3) 어떠한 제3세력도, 한국문제의 위상을 고려하는 국제적 회의에서 북한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 4)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보존을 완전히 인정하고 보장해 주려는 것이었다. 그

1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91), 『한국전쟁 휴전사』, pp.24-31에서 요약.

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9), 『한국전쟁(下)』, p.365.

러나 판문점 휴전협상의 진전상황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대중집회와 데모가 보다 자주 그리고 규모도 더 크게 확산됨으로써 휴전반대는 강화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말로써 단독행동을 요청하면서 전보다 더 호언장담하며 국민들을 독려하기 시작했다.¹²⁾

미국과 소련간의 막후접촉에 의한 휴전설이 파다한 가운데, 남한 국회는 1951년 6월 5일 휴전 반대결의를 통하여 중공군의 침략행위 정지와 철퇴를 요구하고, 한국의 완전자주통일 이외의 어떠한 형태의 휴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38도선 휴전반대 국민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국민들은 공산침략자들에게 재침의 시간과 기회를 주려는 휴전에 결사반대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소련의 휴전제의(1951. 6. 23.)에 대하여 중공과 북한이 잇따라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자, 미국과 소련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7일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히는 휴전안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¹³⁾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본회담 대표단은 1953년 7월 10일 11시에 판문점에서 만났다. 휴전이 더욱 임박해지자 한국 정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었다. 당시 외무장관이 이 대통령보다 더욱더 극단적으로 휴전반대를 들고 나왔다. 대한민국이 휴전을 준수할 것이라고 해리슨 장군이 공산측에게 재확인한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남한은 이들 성명들의 결과에 따라 “자제하는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덜레스 장관은 한국의 지도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유엔군측 수석대표의 성명은 유엔군 사령부를 대신한 것으로서, 결코 어떤 한 정부와 결부되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간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¹⁴⁾

이후 판문점에 남아 있던 휴전 장애물들은 7월 23일에 처리되었다. 참모 장교들은 최근 전투가 벌어진 곳에 대한 군사분계선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을

12) 앞의 책, p.377.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91), 앞의 책, p.28.

14) 같은 책, p.427.

벌인 다음, 최종 군사분계선 협정에 서명하였다. 1953년 7월 27일에 서명된 휴전은 다만 임시 해결책으로서 한국문제의 전반적인 정치적 해결에 의해 대처할 작정이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무성은 정치적 해결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휴전은 수 년 동안 계속 유효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¹⁵⁾

2) 전쟁 당시의 국내외 언론 상황

이승만 정부는 1948년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탄생하였다. 국가의 주요 정책 기조는 미군정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언론정책에서도 좌익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으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한 보수 언론은 우익 세력과의 철저한 공조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보수 언론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단정 수립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유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우익언론이라도 정부의 비위를 거스르는 기사를 보도할 경우엔 가차없이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와 우익 언론 사이에 대립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모든 신문 잡지 및 통신이 자취를 감춘 시기가 있었다.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한 후 일부 신문이 서울에서 복간호를 냈는데 《동아일보》는 그 해 10월에, 그리고 《조선일보》는 당시 편집인인 방용모가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발행을 허가하지 않다가 편집을 최용진으로 교체한 후 속간을 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¹⁶⁾

한편, 1953년 7월 포로교환이 시작된 후 1천7백여 명에 달하는 외국기자들이 한국을 취재해 갔다고 한다. 당시 이들 외국기자들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보도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은 드물지만,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체제가 강화되어 가던 시점이었으므로 이데올로기적인 편향보도 뿐만 아니라 서방 기자들에 의한 불균형보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

15) 같은 책, pp.441-446에서 요약.

16) 김민환(1996),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pp.396-400에서 요약.

적도 있었다.¹⁷⁾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1950년대 한국 신문들의 정치적 성향을 크게 ‘여당지’, ‘친여지’, ‘중도비판지’, ‘야당지’로 분류해 본다면 《동아일보》는 ‘야당지’, 《조선일보》는 ‘중도비판지’로 분류한다.¹⁸⁾ 당시 신문들이 이러한 성격을 지니게 된 데에는 이승만의 통치에 대한 언론의 보도경향을 근거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휴전회담이 시작된 1951년 가을 들어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헌안은 1952년 1월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다. 그 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탄압이 있었는데 그해 5월에 벌어진 이 정치파동은 정부권력과 우익 언론이 균정 하에서 맺은 동반자 관계를 청산하고 대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휴전체제가 성립한 후 이승만 정부는 국무총리제 폐지와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등 독선과 억지를 일삼자 권력과 언론의 갈등은 더욱 커져가는 시점이기도 하였다.¹⁹⁾

어찌됐건 당시 언론은 무력에 의한 복진 통일이 통일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가운데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상황에 직면하여 ‘부르주아적 자유주의’²⁰⁾에 의한 언론자유 투쟁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언론연구원(現 한국언론재단)은 한국전쟁 4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전쟁 당사국인 남·북한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열강의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국가와 소련을 비롯한 중국 등으로 나누어 모두 7개국 신문을 분석하였다.²¹⁾ 여기서는 언론의 한국전쟁에 관한 동서보도 비교연구를 통해 자유진영 언론은 휴전을 또 다른 경계의 시작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 자유진영 국가 신문(특히 남한에서 발행되는 중앙일간지)들은 대체로 휴전을 희망적으로 관측하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휴전

17) 송건호(1990), 『한국현대언론사』, 서울: 삼민사, p.89.

18) 주동황·김해식·박용규(1997), 『한국언론사의 이해』, 서울, p.66.

19) 김민환, 앞의 책, pp.402-403에서 요약.

20) 방정배(1989), 『여론과 정치실록』, 나남, pp.45-48.

21) 한국언론연구원(1990), 『한국전쟁의 동서보도 비교-6.25 40주년 맞아』에서 요약.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이같은 신문보도는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당시 남한 언론은 휴전을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꼽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언론은 한국전쟁을 ‘미·소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고, 한반도는 이러한 대립의 격전장 구실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의 언론들이 휴전을 UN 혹은 미국의 승리로 규정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행해졌던 양국의 대리전이었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국전쟁 보도의 또 다른 특징으로 단순전쟁으로서는 역사상 최대의 보도였다는 점도 들고 있다. 관련기사가 차지한 지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당한 분량이었으며, 각국에서 모여든 중군기자의 수도 전시 초기 238명으로 이것은 2차 대전에 동원되었던 기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취재활동도 대단히 적극적이었으며, 각국 신문의 많은 기사는 이들의 송고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지면의 분량에서는 *The New York Times*가 앞서는데 초기전과 휴전협정시 단일기사 건수가 평균 23건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요약하면 남한의 4개 신문 모두 26일자부터 일방적으로 아군의 승리만을 보도하면서 격전상황이나 피해 상태, 전황의 비교 등을 통한 사실적 접근이 미흡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6일 이미 의정부와 포천의 점령, 27일은 서울 일원에서 전투가 있었으며, 28일 한강교 폭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신문은 ‘장한 서울의 모습’과 ‘만세소리 충천’이라는 기사로 일관한 것은 당시 환경감시와 처방의 기능은 전혀 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결과가 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반면에 서방신문들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보도를 하여 나중에 밝혀진 사실과 불일치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언론은 전쟁 당사국일수록,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수록 정부의 입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미 언론의 휴전에 관한 보도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이 연구는 한국전쟁 중 휴전에 이르는 과정을 한국의 신문과 미국의 신문은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한·미 양국의 두 신문들은 휴전과 관련하여 각각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 <연구문제 2> 전체적으로 한·미 양국의 신문 사실의 주요 논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양국 신문의 사실은 한국전쟁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가?

2) 분석 대상 및 표본 선정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된 신문은 한국전쟁 당시 전쟁 당사국인 남한에서 발행된 유력 일간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미국의 2대 신문으로 꼽히는 *The New York Times*와 *The Washington Post*를 선택했다.

스트레이트 뉴스와 달리 사실(논설)에는 특정한 신문의 의견과 주장이 뚜렷하게 제시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특정한 신문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사회적 역할을 추정해 내는 작업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더구나 역사적 접근을 통해 한 시대에 발간된 신문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문의 사실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한국전쟁 당시 ‘휴전’은 1951년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휴전’협상이 구체적으로 이뤄진 시기인 1953년에 신문의 사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추출한 사실이 각각 29건, 27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한·미 신문들의 각 사실의 단락에 나타난 주제(major theme)를 찾아 내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각각 71개와 86개의 단락으로 분류하였다. 또 미국의 *The New York Times*와 *The Washington Post*는 각각 221개, 185개의 단락으로 분류하여 주제를 분석하였다.

표본의 선정은 한국 신문의 경우, 한국전쟁에 대한 휴전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3년 사설 가운데서 내용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체계적 요일 선정 방법(constructed week sampling)으로 표집하였다. 모집단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당시 한국신문의 전쟁에 대한 주장이 반복적으로 중복된 보도가 많아, 이것을 고려하여 표본으로 선정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사설 건수는 각각 11건, 12건이다.

<표 1>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

《동아일보》 사설 제목	《조선일보》 사설 제목
4.3 휴전문제의 재연	4.2 적축이 기획하는 휴전의 진의
4.10 평화공세의 진의	4.19 소련 반응 기대할 것 없다.
4.21 휴전회담의 재개 앞두고	4.25 휴전회담 재기는 무의미
5.17 정치의 초점	5.16 휴전문제와 근시안적 영국 태도
5.22 결단의 시기는 지금이다.	5.19 휴전에 선행할 군사행동의 적극화
5.28 휴전안과 정부의 임무	5.25 한국주장에 기초를 두라. 휴전문제 의견조정필요
6.10 아대통령의 과실	5.29 휴전문제와 국제적 대비책
6.17 휴전회담과 적공세	6.2 휴전회담의 휴회연장을 경계
6.30 이제라도 늦지 않다.	6.16 전투는 금일의 문제
7.11 민간외교 강화 긴급	6.22 우리심정은 이렇다.-적에 틈탈기회를 주지 마자
7.28 휴전성립	7.21 자조정신으로 매진하자
	7.28 신사태에 비하라-휴전협정조인에 기함

3) 분석 방법

한국전쟁 당시 ‘휴전’에 관한 사설을 대상으로 양국의 신문은 ‘어떤 논제’로, 그리고 ‘어떤 논조’로 구성하려 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선

휴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태도유목에 따라 내용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단위는 사실 전체를 분석 단위로 삼았다.

전후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던 남침 혹은 북침의 주장을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짚어보고, 특히 한국전쟁을 성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한 휴전에 대한 평가는 전쟁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4. 연구결과

1) 휴전에 대한 한·미 신문들의 태도

(1)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주제별 분류 및 태도

단락별 주제들은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새로운 평화제안, 포로송환 문제, 휴전협상의 조건과 진전상황, 휴전협상에 대한 남한의 반대, 그리고 UN 및 타국에 대한 요구 등 5개의 범주로 분류했다.

① 새로운 평화제안

아래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Malenkov의 새로운 평화제안에 대해서

<표 2> 새로운 평화제안에 대한 한국신문 태도

신문 선호도	호의적	중립적	비호의적	합계(%)
동아	.	6	8	14
조선	.	6	.	6
합계(%)	0	12(60)	8(40)	20(100)

한국 신문의 20개의 주제 가운데 60.0%가 ‘중립적’이었고, ‘비호의적’인 것은 40.0%에 달했다. 일단 중립적인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포로송환 문제

포로송환 문제에 대한 한국 신문의 주제는 약 11개로 나타났는데 이중 63.6%가 ‘중립적’이었고, ‘비호의적’인 것은 27.3%에 달했다. 포로송환 문제에 대해서 한국신문은 일단 중립적인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포로송환에 대한 한국신문태도

신문	호의적	중립적	비호의적	합계(%)
동아		1		1
조선	1	6	3	10
합계(%)	1(9.1)	7(63.6)	3(27.3)	11(100)

③ 휴전협상의 조건과 진전상황

휴전협상의 조건과 진전상황에 대한 한국 신문의 주제는 약 48개로 나타났는데 이중 ‘비호의적’인 태도가 56.3%로 나타났다. ‘중립적’ 태도는 33.3%, 그리고 ‘호의적’인 태도도 10.4%에 달했다. 휴전협상의 조건과 진전상황에 대한 한국신문의 태도는 비호의적인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휴전형식의 조건과 전쟁상황에 대한 한국신문태도

신문	호의적	중립적	비호의적	합계(%)
동아	1	8	7	16
조선	4	8	20	32
합계(%)	5(10.4)	16(33.3)	27(56.3)	48(100)

④ 휴전협상에 대한 남한의 반대

휴전협상을 반대하는 남한을 다룬 한국신문의 주제는 약 46개에 달한다. 이 중 '호의적'인 태도는 73.9%에 달하고, '중립적'인 태도는 23.9%, 그리고 '비호의적'인 것은 2.2%에 달했다. 휴전협상을 반대하는 남한의 태도에 대해서 한국신문은 호의적인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휴전협상에 반대하는 남한에 대한 한국신문태도

신문	호의적	중립적	비호의적	합계(%)
동아	21	8	.	29
조선	13	3	1	17
합계(%)	34(73.9)	11(23.9)	1(2.2)	46(100)

⑤ UN 및 타국에 대한 요구

UN 및 타국에 대한 요구를 다루는 한국신문의 주제는 약 29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 '비호의적'인 것은 55.2%, '중립적'인 태도는 34.5%에 달했다. 그리고 '호의적'인 태도는 10.3%로 나타나 한국신문은 비호의적인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UN 및 타국에 대한 요구에 대한 한국신문태도

신문	호의적	중립적	비호의적	합계(%)
동아	1	1	8	10
조선	2	9	8	19
합계(%)	3(10.3)	10(34.5)	16(55.2)	29(100)

한국신문의 단락별 주제를 5개의 범주로 분류해서 태도를 살펴본 결과, 당시 한국신문이 가장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논제는 포로송환 문제와 새로운

평화제안이었다. 가장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논제는 휴전협상의 조건과 진전상황으로 당시 가장 첨예한 논제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UN 및 타국에 대한 요구에서도 상당히 비호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 *New York Times* 와 *The Washington Post*의 주제별 분류 및 태도

단락별 주제들은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새로운 평화제안, 질병 및 부상포로 송환, 휴전협상의 조건과 진전 상황, 휴전협상에 대한 남한의 반대, 미국 국내 정치 상황(휴전협상과 관련된), 그리고 그밖에 기타 사항(유럽상황, NATO, 중·소관계, 인도차이나 동남아 문제, 공산권문제 등) 등 6개의 범주로 분류했다.

① 새로운 평화제안

Malenkov의 새로운 평화제안에 대한 63개의 주제 가운데 14.3%가 ‘호의적’이었고, 약 50.8%의 주제가 ‘비호의적’이었으며, 나머지 약 34.9%가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평화제안에 대한 외국신문태도

신문	호의적	중립적	비호의적	합계(%)
NYT	4	12	20	36(57)
WP	5	10	12	27(43)
합계(%)	9(14.3)	22(34.9)	32(50.8)	63(100)

② 포로송환 문제

모두 60개의 주제 가운데 25.0%는 ‘호의적’이었고, 32%는 주로 공산주의자들에게 비판적이었고, 43%는 ‘중립적’이었다.

<표 8> 포로송환문제에 대한 외국신문 태도

신문	호의적	중립적	비호의적	합계(%)
NYT	6	16	12	34(56.7)
WP	9	10	7	26(43.3)
합계(%)	5(25.0)	26(43.3)	19(31.7)	60(100)

③ 휴전 협상 조건과 진전상황

모두 214개의 주제 가운데 협상조건과 진전상황에 호의적인 것은 25.2%, 비호의적인 것은 모두 42.6%였다. 부정적인 것들 중에서 일반적인 비판은 7.0%, 공산측에 비판적인 것은 30.4%, 미국과 UN측에 비판적인 것은 5.2% 정도였다. 나머지 32.2% 정도는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휴전협상 조건과 진전상황에 대한 외국신문 태도

신문	호의적	중립적	비호의적			합계(%)
			일반	공산측에 비판	UN에 비판	
NYT	28	44	9	41	6	128(60)
WP	26	25	6	24	5	86(40)
합계(%)	54(25.2)	69(32.2)	15(7.0)	65(30.4)	11(5.2)	214(100)

④ 남한의 휴전반대에 대한 미국신문 사설의 태도

모두 105개의 남한측의 휴전협상 반대에 관련된 주제 가운데 약 45%가 '비호의적'이었고, '호의적'인 것은 약 30%에 달했는데, 이것들 모두는 부분적으로 호의적인 것이었다. 중립적인 것은 25.7%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약 44.8%의 주제가 남한의 휴전반대에 부정적인 반면, 긍정적인 논평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약 30% 가까이는 남한의 입장에 동정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이것이 결코 남한의 휴전반

<표 10> 휴전반대에 대한 외국신문 태도

신문	호의적	중립적	비호의적	합계(%)
NYT	24	10	12	46
WP	7	17	35	59
합계(%)	31(29.5)	27(25.7)	47(44.8)	105(100)

대 입장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아니었고, 앞으로의 안보를 도와주어야 한다거나 전후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거나 통일을 위한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논평에 지나지 않았다.

2) 한·미 신문 사설의 논제분석

(1)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주요 논제

① 휴전문제의 부가: 반대입장

1953년 4월 휴전문제가 다시 두각을 나타내며 공산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엿보이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일제히 “적측이 의도하는 휴전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부가시키며, 휴전성립을 적과의 타협이라고 규정한다. 1953년 사설들이 휴전에 대해서 일단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주요한 사설 구절은 아래와 같다.

적측의 양보적 타협으로 휴전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적측의 평화운운하는 선전공세의 일파임을 간과하지 말자. ... 우리의 통일 대업이 성취되는 날까지 냉철한 행동이 요구된다. ... 적측은 진정한 평화의도가 없다. 군사적 내공을 기획하면서 한편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듯한 거동이다. ... 한국통일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적과의 타협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조선, 1953. 4. 2., 「적측이 기획하는 휴전의 진의」)

소련 등은 냉전의 국부적 문제에 타협적인 태도를 표시하여 자유세계의 이목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 … 한국의 휴전은 명예도 아니요, 평화도 아닌 것이며 유엔의 패배요 대전의 씨를 뿌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 자유세계는 타협을 일삼지 말고 자유와 평화의 대원칙을 내세워 실력적인 자유보호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동아, 1953. 4. 3., 「휴전문제의 재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휴전을 적극 반대하는 주장을 요약하면, 공산군측이 제기한 휴전제기의 배경을 적 측이 평화 운운하는 것은 선전공세의 일파라고 규정짓고, 적측은 진정한 평화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공산당인데 협상에서 해결을 구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망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통일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적과의 타협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한국의 휴전은 명예도 아니요 평화도 아니며 결국 유엔이 패배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시 큰 전쟁의 원인을 낳는다고 하였다. 휴전으로 국경이 나뉘어지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휴전이 제기되자, 국내 언론은 휴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실을 통해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휴전에 대한 적극 반대, 행동강령을 적극 주장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휴전에 대한 반대입장은 1953년 5-6월에도 일관되게 계속되고 있다. 휴전협정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한데서 앞서 주장한 휴전반대보다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행동강령으로 북진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며, 원조를 받아 경제부흥을 꾀하지는 요지의 주장을 담고 있다.

휴전은 전쟁이상으로 위협하다. … 자유세계가 협조해야 하는데 영국과 같은 나라는 일시적 평화만을 내세워 소련의 평화공세에 봉사하고 있다. … 우리는 적의 여하한 공격이라고 막을 수 있도록 군비를 확충해야 하고, … 후방

이 공산주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경제부흥을 이룬다.(동아, 1953. 5. 17., 「정치」의 초점)

재개된 휴전회담이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 적측은 오랫동안 휴전회담을 끌어오면서 군사적 위력을 가하고 있다. ... 한국전쟁에서는 주가 되어야 할 군사행동이 부수적이고 오히려 정치행동이 주가 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 적에게 군사적 경제적 타격을 가해야만 한국문제나 전 극동문제가 해결가능한 것이다. ... 유엔측으로는 휴전성립을 고려할 것 없이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취해야 한다.(조선, 1953. 5. 19., 「휴전에 선행할 군사행동의 적극화」)

휴전을 반대하는 언론의 논조는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우리가 대비해야 할 강도를 낮추지 말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적의 여하한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군비를 확충해야 하고, 적에게 군사적 경제적 타격을 가해야만 한국문제나 전 극동문제가 해결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유엔측에는 휴전성립을 고려할 것 없이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것을 권유하고,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의사를 기초로 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함으로써 휴전반대에 대한 종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이 생각하는 휴전이란 통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적이 제기하는 휴전은 외적 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실상 차기 침략을 위한 시간 벌기가 목적이라고 규정짓는다. 북진통일을 실현하려 하지 않고 휴전을 하려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매우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국내 언론은 공산군을 매우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과의 휴전회담이란 있을 수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③ 휴전성립의 현실화에 대한 입장

1953년 7월 28일 휴전성립이 이뤄졌다. 3년 동안 끌어온 한국전쟁은 여기서 휴전을 맞게 된다.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휴전이 현실화되자 한국의 신문들은

그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휴전에 대해서 어떤 해석과 의미를 달고 있는지, 주요 구절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3년 이래 우여곡절을 거듭하던 휴전회담은 협정초안에 조인할 날만 남겨 놓았다. ... 적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거나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 휴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 우리정부는 유엔 우방국가와 동일한 보조를 취하기 위해 부득이 휴전을 응하게 되었다. ... 더욱 북진태세를 갖춰 명령이하 밀고 올라갈 준비를 튼튼히 하면 그만이다. ... 우리가 통일목적을 달성하고 조국을 수호하려면 가진 힘을 집결하여 자기실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 한걸음 한걸음씩 힘을 증강하여 장차 강대한 힘이 될 것이다.(조선, 1953. 7. 21., 「자조정신으로 매진하자」)

이제 총을 거두고 사육의 비참이 그쳤다고 하는 데서 유혈의 중지를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옹당히 징벌을 받아야 할 침략자를 유화하는 결과가 되고 만 것으로 불행한 일인 것을 숨길 수 없다. ... 진정한 세계평화는 한국의 민주적 통일원수일 터인데 공산진영은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 한국이 눈물을 머금고 휴전성립을 방해하지 않은 것은 자유진영의 단결을 유지하려는 이유에서이다. ... 휴전후 외교전, 사상전, 정치전은 어떤 의미에서 총포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동아, 1953. 7. 28., 「휴전성립」)

휴전협정이 성립된 것에 대해서 한국의 신문들은 한국정부가 유엔 우방국가와 동일한 보조를 취하기 위해 부득이 휴전을 응하게 되었다고 해석을 달았다. 전쟁은 잠시 쉬는 것이므로 더욱 북진태세를 갖춰 밀고 올라갈 준비를 튼튼히 하자는 조언을 달고 있다. 즉 통일목적을 달성하고 조국을 수호하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실력을 육성할 것을 적극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휴전성립은 옹당히 징벌을 받아야 할 침략자를 유화하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며, 한국이 부득이 휴전성립을 방해하지 않은 것

은 자유진영의 단결을 유지하려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전쟁의 참화를 빚어낸 전란의 책임을 소련의 세계 정복 야욕으로 규정지으며, 이러한 책임을 물지 않고, 휴전을 성립시킨 것은 전쟁에 관한 근본문제의 해결을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적으로 북진태세를 준비하며, 반드시 통일을 이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2)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의 주요 논제

미국 신문 사설에 나타난 남한의 휴전반대에 대한 부정적 논평들을 정리해 보면, 한국에서의 UN과 미국의 임무와 목적은 공산군의 남침저지 및 평화와 안전회복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UN과 미국은 이미 한반도 통일을 생각지 않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평화의 회복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 한국민의 친구의 한사람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는 휴전에 한국이 동의하도록 호소할 임무가 있다. ... UN과 미국의 정당성과 참전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 통일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NYT, 1953. 6. 11., "South Korea's Choice")

미국은 한국이 필요한 경제원조를 줄 것이다. ... 또 우리는 한국이 다시 엄청난 비극에 빠지지 않도록 충고와 협조를 해 주고 싶다. ... 이승만의 무력 통일 시도는 또다른 재난과 불행울 초래할 것이다. ... 아무리 용감한 한국군이라도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 (NYT, 1953. 6. 12., "The Help Korea Needs")

미국이나 UN은 결코 한국에 빛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UN의 참전 때문에 현재의 남한이 있다. ... UN의 임무는 그 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현상을 유지시키는 일이다. ... (WP, 1953. 5. 28., "Support on The Truce")

UN이 위임받은 임무는 한국통일이 아니라 일반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일이다. ... 현재 이승만의 주장과 방법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 (WP, 1953. 6. 1., "Rhee's Rebellion")

단독 무력행동을 할 것이라는 이승만의 위협은 한국의 불행/재난을 의미한다. ...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의 평화통일을 도와준다고 했다.(WP, 1953. 6. 8., "Warning to Syngman Rhee")

남북한 통일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휴전 후에 곧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문하며,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을 위한 남한의 단독 무력행위는 패배할 것이고,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서 더 이상의 인적, 물적 희생을 원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으며, 다른 참전 우방국들도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고 한다.

대체로 미국의 신문은 한국 정부의 휴전반대 입장을 반대하며, 또한 무력으로 북진통일을 꿈꾸는 것까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반대, 혹은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한국 신문이 규정한 한국전쟁의 성격

한국 신문이 밝힌 한국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을 소련의 팽창주의로 지적하고 있으며, 침략자로는 소련을 포함하여 북한과 중공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성격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세계사적 의의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규정이 매우 적대적임을 알 수 있다. 사실의 구절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전쟁의 성격이 이제는 세계사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한 진정으로

한국통일의 가능성 여부, 극동 세계평화 확립으로의 가능성 여부가 확연하게 될 때까지는 대적 타협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적타협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조선, 1953. 4. 2., 「적축이 기획하는 휴전의 진의」)

이번 전쟁은 침략자에 대하여 유엔이 공공방위를 단행한 것이라 하여 역사 상에 신시대를 사실이라고 한편 완전승리의 의욕을 가지지 않고 소위 제한된 전쟁이란 개념하에서 적의 근거를 때리지 못하여 온 점에 있어서 또한 전쟁사 상의 전래를 깨뜨렸다고 볼 수 있다.(동아, 1953. 7. 28., 「휴전성립」)

한국전쟁의 성격이 세계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 유엔의 노력에서 정전이 성립된 것을 시인한다면 금후 문제해결도 이뤄져야 한다. ... (조선, 1953. 8. 7., 「배제하라, 사과의 탈선-정치회담과 민주진영의 결속」)

적의 재침의도를 완전히 방지하고 한국통일의 기초를 닦는 유일한 대책은 적의 군사력확장에 있는 것이다. 유엔측은 휴전성립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문제를 더 중시해야 한다. 아직도 휴전은 후일의 문제이고 전투는 금일의 문제인 것이다.(조선, 1953. 6. 16., 「전투는 금일의 문제, 간적에게 충격을 가하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공산당의 무소불위의 모략에 대하여 자유진영은 비상한 경계와 지혜로서 대처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요, 또한 정의 수호의 태도로서 임해야 한다.(동아, 1953. 7. 28., 「휴전성립」)

당시 국내 언론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유엔군이 완전승리의 의욕을 가지지 않고 소위 제한된 전쟁이란 개념 하에서 적의 근거를 때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전쟁사 상의 전래를 깨뜨렸다고 보았다. 남측으로서는 끝까지 북진통일의 염원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다. 언론은 한국전쟁의 실질적 도 발자로 소련으로 규정하였고, 소련과의 정치회담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소련은 6·25 침략을 ‘한국의 내전’이라고 강변해 왔고 한국전쟁에 참여한 바 없다고 변명해 온 사실을 두고 소련은 정치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한국전쟁의 주요 침략국을 소련을 비롯하여 북한과 중공을 지목했다. 따라서 휴전 이후에도 이러한 적의 재침의도를 완전히 방지하고 한국통일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확장할 것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유엔측에게도 휴전성립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문제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당시 한국문제의 권한과 임무는 유엔에 상당부분 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에 관한 보도를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을 선택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 신문의 단락별 주제를 새로운 평화제안, 포로송환 문제, 휴전협상의 조건과 진전상황, 휴전협상에 대한 남한의 반대, 그리고 UN 및 타국에 대한 요구 등 5개의 범주로 분류해서 태도를 살펴보았다. 당시 한국 신문이 가장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논제는 포로송환 문제와 새로운 평화제안이었다. 가장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논제는 휴전협상의 조건과 진전상황으로 당시 가장 첨예한 논제였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UN 및 타국에 대한 요구에서도 상당히 비호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어 당시 한국의 휴전협정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국제기구 및 타국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반면, 미국의 신문은 약 45%의 주제가 남한의 휴전반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한이 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평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당시 한국의 휴전협정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국내언론은 매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미국의 언론은 적극 찬성하는 논조를 보여 당시 한국의 휴전협정에 대해서는 국가간 참여한 대립을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국내 신문이 보인 주요 주제는 휴전에 대해서 제기 단계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1953년 들어 휴전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협상이 이뤄지는 속에서도 일관되게 적극적인 반대입장이 계속되었다. 북진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며, 원조를 받아 경제부흥을 꾀하지는 요지의 주장을 매우 적극적인 입장으로 피력했다. 또한 북한(적)측의 진정한 평화의도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군사적 내공을 기획하면서 한편의 평화를 지향하는 듯한 거동의 이율배반적 자기모순을 폭로한다고 규정하였다.

휴전을 반대하는 언론의 논조는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우리가 대비해야 할 강도를 늦추지 말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적의 여하한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군비를 확충해야 하고, 적에게 군사적 경제적 타격을 가해야만 한국문제나 전 극동문제가 해결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유엔측은 휴전성립을 고려할 것 없이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것을 권유하고,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함으로써 휴전반대에 대한 종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한국 언론이 생각하는 휴전이란 통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북진통일의 대명제를 실현하려 하지 않고 휴전 운운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하여 공산군을 매우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과의 휴전회담이란 있을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당시 한국 언론이 규정하는 한국전쟁은 소련을 비롯한 주요 공산국가인 중공, 북한이 원흉이므로 이들과의 대화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휴전 이후에도 이러한 적의 재침의도를 완전히 방지하고 한국통일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확장할 것을 적극 주장하고 있었다. 유엔측에게도 휴전성립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문제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반면, 미국의 신문 사설이 주장하는 휴전에 대한 입장은 한국의 언론과 매우 대조적이다. 남북한 통일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휴전 후에 곧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문하며,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데 적극적인 논평을 피력하고 있다. 통일을 위한 남한의 단독 무력행위는 패배할 것이고,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서 더 이상의 인적, 물질 희생을 원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다며, 다른 참전 우방국들도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고 한다. 대체로 미국의 신문은 한국 정부의 휴전반대 입장을 반대하며, 또한 무력으로 북진통일을 꿈꾸는 것까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반대, 혹은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휴전협정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던 한국과 미국의 정책을 해당 국가의 언론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Gans와 Cohe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언론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나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민족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공보부(1965), 『光復二十年』.
- 국방부 정훈부(1954), 『韓國戰亂三年誌』 제3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91), 『한국전쟁 휴전사』.
- 강정구(1993), 「미국과 한국전쟁」, 《역사비평》 여름호.
- 고재홍(1997), 「한국전쟁의 원인-미·소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고황정치학회보》 제1권.
- 김계동(1990),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 전쟁기원과 중국의 참전과정」, 《통일문제연구》 제2권 제2호.
- 김덕중(1990), 「한국전쟁을 둘러싼 미·중·소 역학관계」, 《북한》 6월호.
- 김수남(1990), 「한국전쟁기간 중 미국의 문민통제: 트루만과 맥아더의 관계」, 《국제정치논총》 제30집 제2호.
- 김영호(1997), 「한국전쟁 원인의 국제정치적 재해석: 스탈린의 몰백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3호.
- 김학준(1990), 「한국전쟁에 관한 재학설」, 《북한》 6월호.

김명기(1992), 「남북한 국제연합가입과 휴전협정의 효력」, <국제문제> 제23권 제1호
_____ (1989), 「휴전협정: 당사자, 시행기관 대체방안」, <사상과 정책> Vol.6 No.2.

김민환(1996), 『한국언론사』, 나남.

김지운(1991), 「정치·사회현실과 신문사설의 괴리」, <사상> 제3권 제3호.
미육군 전사편찬실(1991), 「다시 반추해 보는 휴전협정 체결과정과 당시의 한미」, <한국논단> 7월호.

방정배(1989), 『여론과 정치설득』, 나남.

배재식(1989), 「휴전협정: 법적인 재문제」, <사상과 정책> Vol.6 No.2.

백진현(1991),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 <통일문제연구> 제3권 제4호.

송건호(1990),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신복룡(1996), 「한국전쟁의 기원: 김일성의 개전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1987),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비밀협상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제2호.

양대현(1992), 「한국전쟁과 한미동맹관계: 동맹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1호.

(1988), 「한국휴전협정과 한미관계」,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제1호.

외무부(1962), 『대한민국의교연표』.

유병화(1989), 「휴전협정: 국제법적 성격과 당사자 문제」, <사상과 정책> Vol.6 No.2.

이기택(1989), 「휴전협정: 정치적 평가」, <사상과 정책> Vol.6 No.2.

주성완(1990), 「한국전쟁을 전후한 미국의 대한정책」, <통일문제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언론연구원(1990), 『한국전쟁의 동서보도 비교-6·25 40주년 맞아』.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1993), 『한국전쟁의 이해』.

Aronson, James(1970), *The Press and the Cold War*, Indianapolis: The Bobbs-merill company, INC.

Berdes, Gorge R.(1969), *Friendly Adversaries: the Press and Government*, Marquette: The Center for the Study of American Press.

Brune, L. H.(1989), "Guns and Butter: The Pre-Korean War Dispute

- Over Budget Allocation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8(3), pp.357-372.
- Campana, G. Andrea(1994), “The Korean War(1950-1953): Conflicting Cross Atlantic Historical Perspectives?,” 《아세아연구》 제37권 제2호.
- Cater, Douglass(1959), *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 New York: Random House, INC., Vantage Book.
- Chen, Jian(1995), “China and the Korean War: A Critical Historical Review,” *Korea and World Affairs*, 19(2).
- Choudhury, G. W.(1990), “Reflections on the Korean War(1950-53): The Factors behind Chinese Intervention,” *Korea and World Affairs*, 14(2).
- Christensen, Thomas J.(1992), “Threats, Assurances, and the Last Chance for Peace: The Lessons of Mao's Korean War Telegrams,” *International Security*, 17(1).
- Chun, Tuk-Chu(1988), “A Study of Crisis Management Behavior: With Emphasis upon American Policies and Tactics for Crisis Management During the Korean War(1950-1953),” *Korea Observer*, XIX(2).
- Cohen, Bernard C.(1983), *The Press and Foreign policy*, Green Press.
- Curasi, Richard M.(1993), “The Korean War Armistice: Relevant or Relic?,”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5(2).
- Dingman, Roger(1988-1989), “Atomic Diplomacy During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Security*, 13(3).
- Dunn, Delmer D.(1969), *Public Officials and the Press*, Ren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 Fisher, Louis(1995), “The Korean War: On What Legal Basis Did Truman Ac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9(1).
- Gans, Herbert J.(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Random House, INC., Vantage Books.
- Goulden, Joseph C.(1982), *The Untold Story of the War*, New York: Times Books.
- Heo, Man-Ho(1990), “From Civil War to an International War: A Dialectical Interpretation of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Korea and World Affairs*, 14(2).

Hwang, Byong-Moo(1988), "Revolutionary Armed Struggle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Asian Perspective*, 12(2).

Khrushchev, Nikita(1991), "Truth about the Korean War," *Far Eastern Affairs*.

Lin, Cheng-yi(1992),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Impact on U.S.-Taiwan Relation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11(4).

Rivers, William L.(1970), *The Adversaries: Politics and The Press*, Boston: Beacon Press.

Sandman, Peter M., David M. Rubin & B. Sachsman(1982), *Media: an Introductory Analysis of American Mass Communic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Sigal, Leon V.(1973), *Reporters and Officials: the Organization and Politics of News Making*, Lexington, Mass.: D. C. Heath.